

“민생·경제 최우선... 국민 위해 일하는 국회 되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0일 광주 광산구사무실에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당선이 확실 하자 환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10일 광주 북구사무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지지자들과 함께 환 호하고 있다.

당선인에 바란다

일자리 창출·지방소멸 대응 주문
군공항 등 지역현안 적극 해결을
지역 청년들 이탈 해법 마련 절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광주·전남은 역시나 큰 이변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는 끝났지만 민생을 위한 발걸음은 지금부터다. 당선된 이들이 향후 4년간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역시 한 목소리로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지역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10일 광주·전남지역 오피니언 리더 10

명에게 당선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의한 결과 모두가 공통적으로 ‘국민들에게 위안과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홍상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일부 보수세력들은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해묵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하는 것은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원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전남은 군·민간공항 이전,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제정 및 실증밸리 조성, 첨단패키징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달빛철도 조기 건설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들 과제를 반드시 단계적으로 조기에 실천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발전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상 광주축산농협 조합장은 “사료 가공협의회 내에 배합사료 가격조정심의 위원회 기구 설치에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국회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경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회장은 “고금리·고물가에 대내외 수요 감소까지 겹치며 지역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장 역시 “‘3고’ 현상과 저성장 늪에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당선인들이 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여건 마련, 적극적 투자와 함께 우수인재가 머물 수 있는 정책을 내건만큼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에 대한 국회 차원

알립니다

제22대 총선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

4월 15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

전남일보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국회의원 선거 광주·전남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전남일보는 지난 2014년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당선자 교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교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호남의 꿈과 미래, 그리고 희망이 되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례회에서는 당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광주·전남의 상생발전과 도약을 위해 서로 힘을 모으는 한편,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와 사·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일 시 2024년 4월 15일(월) 오후 2시~3시40분
장 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동 4층 컨벤션홀
참석대상 국회의원선거 당선자 및 광주·전남 초청 인사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062-519-0731) 주 최 전남일보

의 해법 마련도 절실한 바람이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고등교육의 안정적 발전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은 “지방을 키워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지방대학을 살리는 일은 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급히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계도 당선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025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주문했다.

정찬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

사장은 “정권심판, 사법정의, 언론개혁, 역사바로세우기, 민생안정 등 지역민심의 요구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종기 은암미술관 관장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문화예술 중흥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당선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민들에게 위안과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2·3·4·5·6면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알려드립니다>

제작 마감 및 인쇄 배달시간 관계로 11일자 신문에 4·10 총선 당선인 확정 소식 등 최종 결과를 전해드리지 못해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명단과 관련 소식은 12일(금)에 상세히 게재됩니다.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에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터미널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